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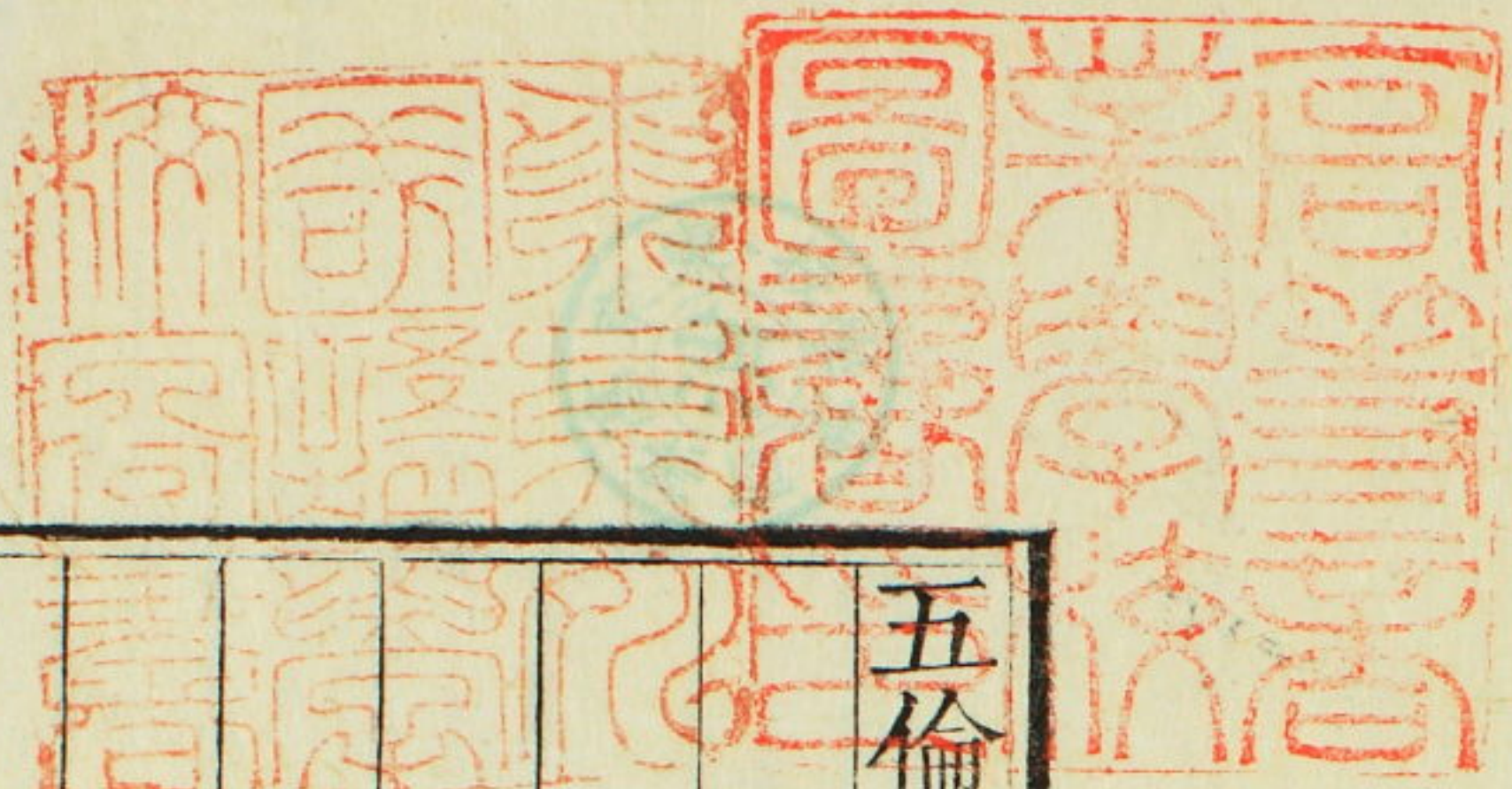
12

9
2470
6止



第十二號
六
生註用

門口
號 2470
卷 6-6



五倫行實圖卷第五目錄



朋友

樓護養呂

范張死友

張裔恤孤

道琮尋屍

吳郭相報

李勉還金

徐晦不負

查道傾橐

韓李更僕

純仁麥舟

侯可求鑿

附

師生

云敞自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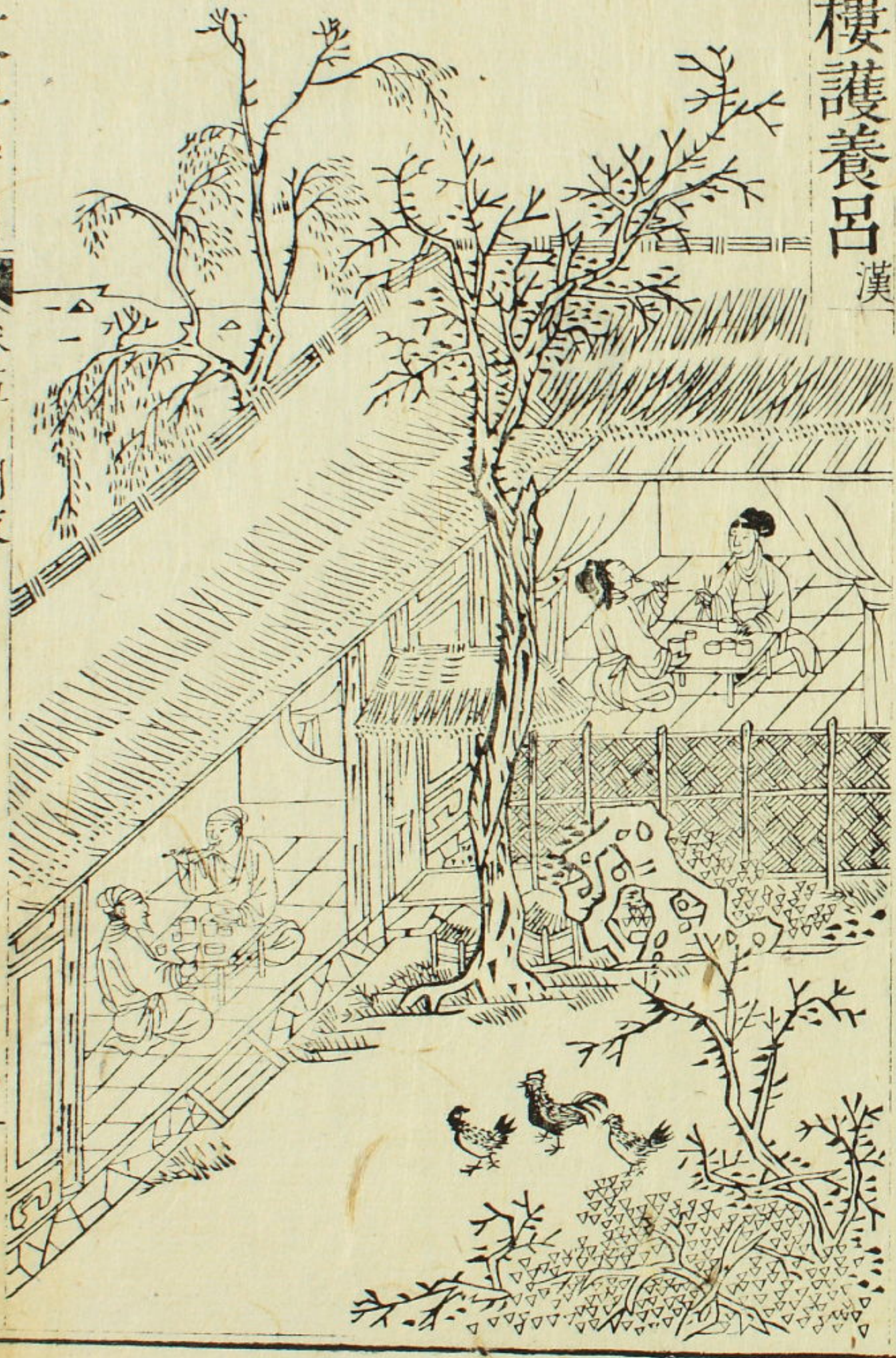
桓榮奔喪

五倫行實圖



樓護養呂

漢



五
卷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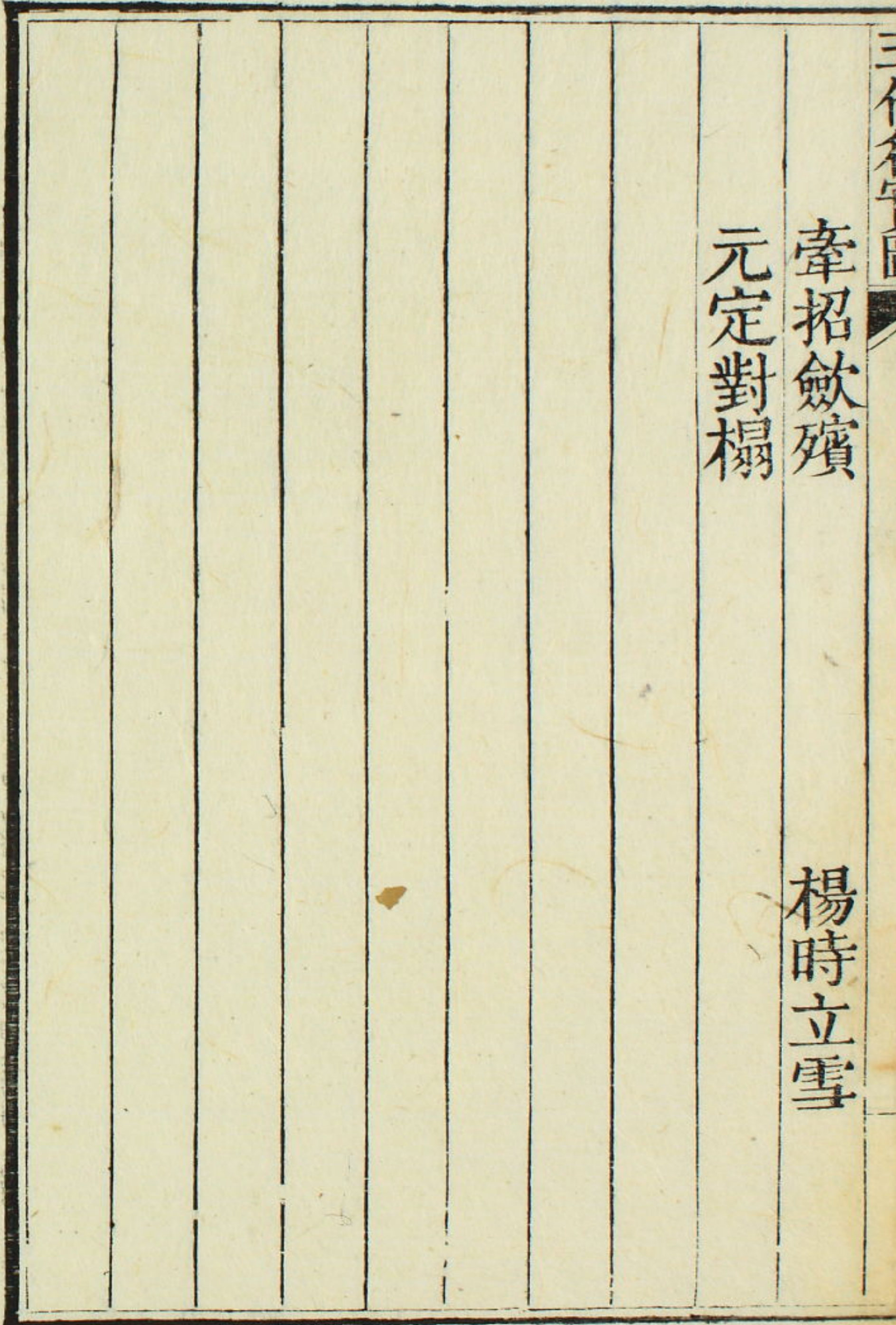
朋友

王作不字區

牽招歛殯

元定對榻

楊時立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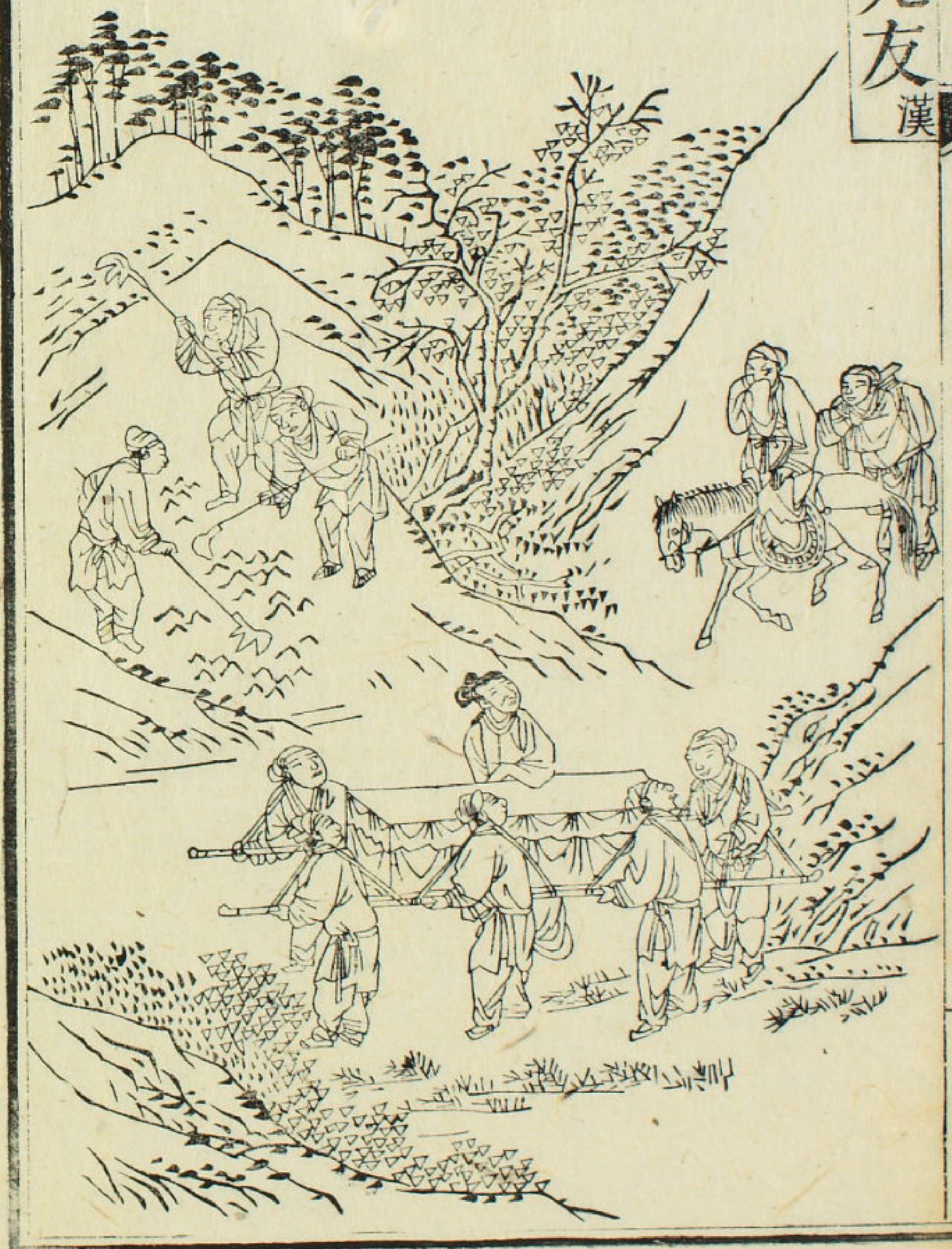


樓護齊郡人有故人呂公無所歸護身與呂公妻與
呂嫗同食後護妻子頗厭呂公護流涕責妻子曰呂
公故舊窮老託身於我義所當奉遂養呂公以終身
詩故人投我爲無歸義所當爲不敢辭身勸呂公
妻勸嫗一盤麤糲當甘肥 久寓人情生厭戮樓
公垂涕責妻孥慙奉養終身世舊諍從前誓不
孤

누호는 한나라 제군사들이니 벗너공이 갈디업
거늘 누회녀공과 호디 밥먹으며 누호의 안히녀
공의 안히와 호디 밥먹더니 오랜후쳐지 마장슬

희여호니 누회를며쳐스물썩지저닐오디녀공
은넛벗이라늘고궁박호여내게와의탁호니
디점호여야을호니라호고녀공을죽기스지디
점호니라

五倫行實圖
范張死友
漢



范式金鄉人字巨卿少遊太學與汝南張劭爲友劭
字元伯二人並告歸鄉里式謂元伯曰後二年當過
拜尊親乃共尅期日期將至元伯請設饌以候之母
曰二年之別千里結言何相信之審耶對曰巨卿信
士决不乖違母曰若然當醞酒至其日巨卿果至後
元伯疾篤歎曰恨不見吾死友范巨卿尋卒式忽夢
見元伯呼曰巨卿吾以某日死某時葬子未我忘豈
能相及式便馳往赴之喪已發引既至壙而柩不肯
進其母撫之曰元伯豈有望耶遂停柩移時乃見有
素車白馬號哭而來母曰是必巨卿也巨卿既至叩

喪言曰行矣元伯死生異路永從此辭式因引柩於
是乃前式遂畱止冢次爲脩墳樹而去

詩千里相期二載餘眼青堂上見華裾壽觴共進
浮春色始喜吾兒語不虛 白馬馳來是巨卿夢
中相感亦丁寧攀號永訣柩還進誠信應通地下

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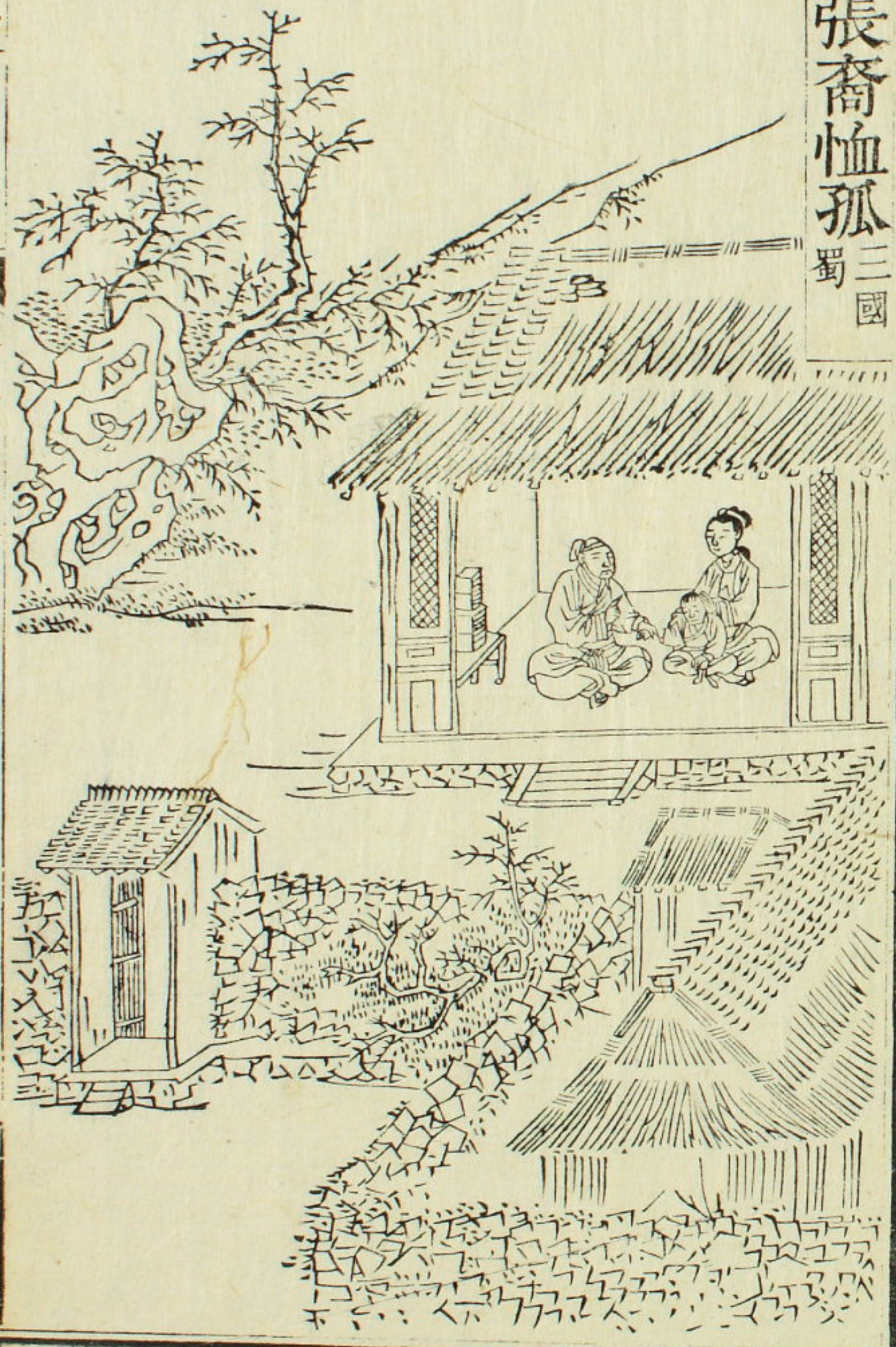
범식은한나라금향사름이니저는거경이라저
머서태후에든닐시당원백과스괴엇더니원백
으로더브러고향으로도라갈시식이원백드러
닐오디훗두히만에그디모친을가셔되오리라

하고과약하엿더니그날이갓가와오거늘원백
이어미게고하여음식을마초와디라하디어미
닐오디두히니별에천리에서닐은말을엇디미
드리오원백이곧오디거경은유신흔사름이라
반드시어귀디아니하리이다어미닐오디그러
하면술을비즈리라하더니그날에과연거경이
와당에올라절하고술먹으니라후에원백이병
이등하니탄식하여곧오디범거경을못보와하
이로라하고이응고죽으니식이숨에원백이불
러닐오디거경아내아모날죽어아모날장소하

너니 날을 닦지 아니커든 미쳐오라 식이 삼을 씨
 여즉시 돌려가니 볼셔 발인 흥여 무들싸해가시
 되관이 아나가 거늘 그어미 관을 어르만 지며 곧
 오디원 빈아 무숨기 드리미 잇는 나 흥터니 이우
 고흘술 위 흰 물로 울며 오너 나 잇거늘 어미 날 오
 디이 반드시 거경이 로다 파연 거경이와 상여를
 두드리며 곧 오디 흥을 다 어다 원 빈아 스싱이 길
 이 다르니 일로 조차 영결 흥리 라 식이 인 흥여 관
 을 드리니 관이 이에 나가 거늘 식이 드디며 머
 무러이셔 무덤을 일우고 나 모사르고 가니라

張裔恤孤

三國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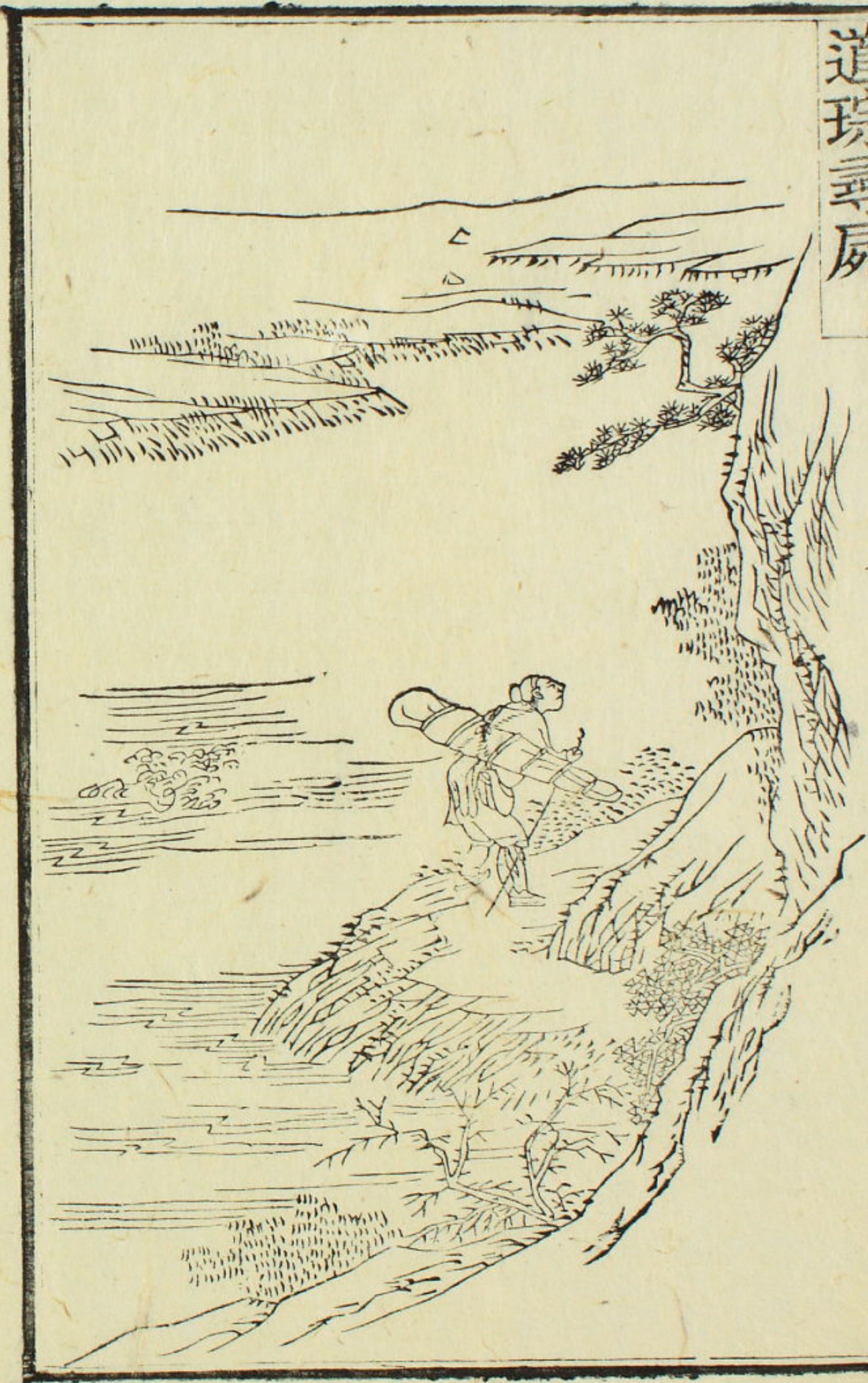
張裔蜀郡人先主以爲巴郡太守少與楊恭友善恭蚤死遺孤未數歲裔迎畱與分屋而居事恭母如母恭之子息長大爲之娶婦買田宅產業使立門戶詩少結金蘭著意長死生雖異義何忘撫孤將母皆如已竟置田莊使主張 友道由來貴不渝張公信義孰能儔世間覆雨翻雲者見此寧無愧汗流

당예는축한새축군사름이라션쥐파군대슈를
하이니당예져머셔양공과벗하여도화하더니
양공이일즉죽고즈식이두어솔도못되엇거늘

당예양공의가속을드려다가집을논화살리고
양공의어미를섬기되친어미못티하며양공의
즈식이즈라거늘당가드리고전택가산을사주
어하여곰문호를세오게하다

五倫行實圖
道琮尋屍

唐



羅道琮蒲州人慷慨尚節義貞觀末上書忤旨徙嶺
表有同斥者死荆襄間臨終泣曰人生有死獨委骨
異壤耶道琮曰吾若還終不使君獨畱此瘞路左去
歲餘遇赦歸方霖潦積水失其殯處道琮慟諸野波
中忽若溢沸者道琮曰若屍在可再沸祝已水復湧
乃得屍負之還鄉

詩天涯同謫共辛酸委骨殊方涕自潛珍重臨終
盟約在將身何忍獨生還 鷄書似與潦相期草
葬江邊失所之一片丹誠天感應波中溢沸豈人
爲

나도종은당나라포유사람이니 당대종대 목음이 강개하
고 절의를 숭상하더니 당대종대 정관 년호라 적의 상소하
다가 남군의 뜻을 거스려 남에 귀향갓더니 호
가지로 귀향간재이셔 형양소의 셔 죽을 제을
머닐오디 사람마다 죽음이 잇거니와 내 홀로 남
의 사히 싸를 버리랴도 종이닐오디 내 만일 도라
가면 口 참내 그 디로 혼자 예 잇게 아니하리라 하
고 길 マ 에 못고갓다가 하히 남 죽하야 샤를 만나
도라올 제 마초와 장마디니 물이 빠히여 무든 곳
을 일코도 종이 들히셔 울며 찾더니 물결이 흘연

이 설는듯하거늘도 종이닐오디 죽음이 예 잇거
든 다시 설하라 하고 비더니 물이 또 솟거늘 죽엄
을 어더 몸소 지고 도라오니라

吳郭相報

唐



吳保安魏州人與郭仲翔居同里仲翔為姚州都督李蒙判官哀其窮力薦之表為掌書記後仲翔被執於蠻必求千緡乃肯贖保安營贖仲翔苦無資乃力居貨十年得緡七百妻子客遂州間關求保安所在困姚州不能進都督楊安居知狀異其故贄以行求保安得之引與語曰子棄家急朋友之患至是乎吾請貸為贄助子之乏保安大喜即委緡于蠻得仲翔以歸後仲翔居母喪及服除喟曰吾賴吳公生今親歿可行其志時保安以彭山丞客死妻亦歿喪不克歸仲翔為服縗經囊其骨徒跣負之歸葬廬墓三年

乃去迎保安子爲娶妻而讓以官

詩投蠻乞救恨家貧力索千緡贖一身負葬服縗
還守墓感恩終報再生人 滔滔盡是翻雲手千
古稀逢信義中感激恩情期必報兩人高操激媮
風

오보안은당나라위주사름이니곽등상으로도더
브러흐름을에서사다가등상이요주도독니몽
의판관이되여보안의궁박흐름불상이너겨니
몽의게힘써천거흐여당셔괴벼슬을흐였더니
후에등상이남방오랑개게잡히여김일천필을

밧고노흐리라흐거늘보안이속흐여내고져호
디감시업스니힘써당스덜흐여십년만에김철
빅필을엇고쳐즈노흐가지로슈주셔히부티여
이셔두로보안의잇는곳을찾다가요주에서돔
이디쳐능히나아가디못흐더니도독양안게그
일을알고괴이히너겨위흐여보안을차자어드
니안게청흐여닐러올오디그디집을브리고벗
의환란을급히너기미이래도록흐나청권대지
물을내여그디부족흐거슬도으리라보안이크
게깃거김을가져오랑개를주고등상을어더도

라오니 후에 등상이 모상을 만나 삼년을 모친
 탄식하여 곧 오디내 오공을 힘남어 사 랫는 디라
 이제 눈어 버이 업스 니 가히 배뵈을 힘히 리라
 고이 색에 보안 이 평산 승벼슬에 서 죽고 그 안히
 도 또 호죽어 능히 리 상하 여 도라 오디 못하 니 등
 상이 위하 여 복을 남고 죽음을 거 두어 지고 도라
 와 장스 룰 모 친매 삼년을 슈묘하 고 보안의 아들
 을 마즈와 당가 드리고 벼슬을 스양하 여 주니라

李勉還金 唐



李勉京兆人少貧客梁宋與諸生共逆旅諸生疾且死出白金曰左右無知者幸君以此爲我葬餘則君自取之勉許諾既葬密置餘金棺下後其家謁勉共啓墓出金付之

詩逆旅同棲幾苦辛臨終訣語忍堪聞死生付托無相負高義千秋孰似君 葬君餘是爲吾物若取而歸是負心密取餘金棺下置此心皎皎彼蒼臨

니면은당나라경도사람이니저은제가난하여
냥송씨의가손이되어선비들과훈유인에잇더

니훈선비병드러죽을제흰금을내어면을주어
곧오디것히사람이모르니그디이금으로내
장소를디내고남거든그디가지라니면이허락
하고장소를말태매나쁜금을만이관아리녀
히더니후에그집사람이면을가보니면이훈가
지로무덤을열고금을내여주니라

徐晦不負唐



徐晦少為楊憑所善憑得罪貶臨賀尉姻友憚累無
 往候者獨晦至藍田慰餞宰相權德輿謂曰君送臨
 賀誠厚無乃為累乎晦曰方布衣時臨賀知我今忍
 遽棄耶有如公異時為奸邪譖斥又可爾乎德輿歎
 其直稱之朝李夷簡遽表為監察御史晦過謝問所
 以舉之之由夷簡曰君不負楊臨賀肯負國乎
 詩自許相知舊布衣那堪遠謫送將歸一身有累
 何曾計送至藍田不忍離 相公推薦應非苟稱
 職終為御史官不負相知寧負國高名一日上朝
 端

서회는당나라사람이니 벗양빙이 죄에 걸려내
티여넘하위벼슬로가거늘겨래와벗들이년루
홀가저허가보리업더니서회홀로가전송호대
지상권덕예닐오디그디넘하를전송호니진실
로후후거니와년루호미업스라서회졸오디내
포의쇄브러넘하와친호니이제차마엇디브리
리오만일공이이후에간인의게모함호배되면
또호그리아니라덕예그고든줄을도형에일크
르니니이간이서회를천거호여감찰어스를호
이니회가서샤레호고천거호연고를무른대이

간이닐오디그디양넘하를저브리디아니호니
엇디나라홀저브리라호더라

五倫行實圖
查道傾囊



查道休寧人初赴舉貧不能上道親族哀錢三萬遺
之道出滑臺過父友呂翁家翁喪貧窶無以葬其母
兄將鬻女以襄事道傾囊中錢悉與之又嫁其女
詩義重財輕見最明貧難赴選亦無營却將親戚
哀錢囊都爲先人執友傾 元振今亡可奈何惟
謀鬻女不謀他囊錢傾與供襄事又助其婚濟一
家

사도논송나라휴녕사람이니처음에과거보라
갈제가난후여길을나디못하더니겨레들이돈
삼만을모도와주니헛헛여할디사흐로도디날시

아비벗녀응의집에드러가니녀응의상소가
난응여장수물못홀시쟝춍그셤을푸라디내려
흐거늘사되형장을기우려그돈을다주고그셤
을셔방마쳐보내니라

韓李更僕 宋



韓億雍丘人李若谷徐州人未第時皆貧同試京師
每出謁更爲僕李先登第授長社縣主簿赴官自控
妻驢億爲負一箱將至縣三十里李謂韓曰恐縣吏
來箱中只有錢六百以其半遺韓相持大哭別去後
舉韓亦登第仕皆至參政爲婚姻不絕

詩二子同時舉上都何嫌出謁迭爲奴由來貧賤
交尤密榮辱升沉兩不渝 自控妻驢赴縣時韓
生猶復負箱隨分錢道上相持哭從此連姻義莫
虧

한억은송나라옹구사람이오니아약곡은서유사

름이니급테못하야신제가난하야흔가지르파
거보라셔을갈시서로종이되더니약곡이몬져
급테하야장사사에원하야갈제그안히튼나귀
견마를잡고한억은짐지고가더니고을삼십리
를못밋처가셔약곡이한억드려닐오디고을아
전이올가저해라하고짐에다만돈육백이잇거
늘반을눈화한억을주고서로붓드러크게울고
가더니훗과거의한억이또급테하야들히흔가
지로벼슬이지상에니르고서로혼인하야스니
아니하더라

五倫行實圖
純仁麥舟 宋



范純仁仲淹子仲淹在睢陽純仁到姑蘇搬麥五百斛純仁時尚少既還舟次丹陽見石曼卿問寄此久何也曼卿曰兩月矣三喪在淺土欲葬而北歸無可與謀者純仁以所載麥舟付之單騎到家拜起侍立良久仲淹曰東吳見故舊乎曰曼卿爲三喪未舉方畱滯丹陽時無郭元振無可告者仲淹曰何不以麥舟與之純仁曰付之矣

詩誰教小范往姑蘇大范親提汗血駒搬到義聲
輪老子麥舟五百視錙銖 歸來侍立喜津津不
問歸裝問故人倘不麥舟付襄事茲行終是負嚴

親

범순인은 송나라 사람이니 중엄의 아들이라 중
엄이 순인으로 하여금 고소하다 보니 오 박석
을운 전하여 오라 하니 순인이 이 때에 나하오 하
려져 멧느디 라 도라 을 제 단 양 사 히 다 느 라 석 만
경을 보고 무르르 되 었 디 여 과 오래 잇는 노 만 경 이
닐 오 디 머 무 린 디 두 들 이 로 디 세 상 스 를 빈 소 하
여 두 고 장 스 하 고 가 러 호 디 더 브 러 의 론 하 리 업
세 라 순 인 이 그 보 리 실 은 비 례 다 주 고 단 과 로 집
의 도 라 와 아 비 게 뵈 고 되 셔 섰 더 니 중 엄 이 곧 오

디 동 오 에 서 넷 벗 을 본 다 순 인 이 곧 오 디 만 경 이
세 상 스 를 장 스 하 디 못 하 여 단 양 에 서 머 물 며 이
제 막 원 디 마 틴 사 롬 이 업 스 니 고 홀 디 업 세 라 하
더 이 다 중 엄 이 곧 오 디 었 디 보 리 비 례 아 니 준 다
순 인 이 곧 오 디 볼 셔 주 었 느 이 다 하 더 라

五倫不實圖
侯可求醫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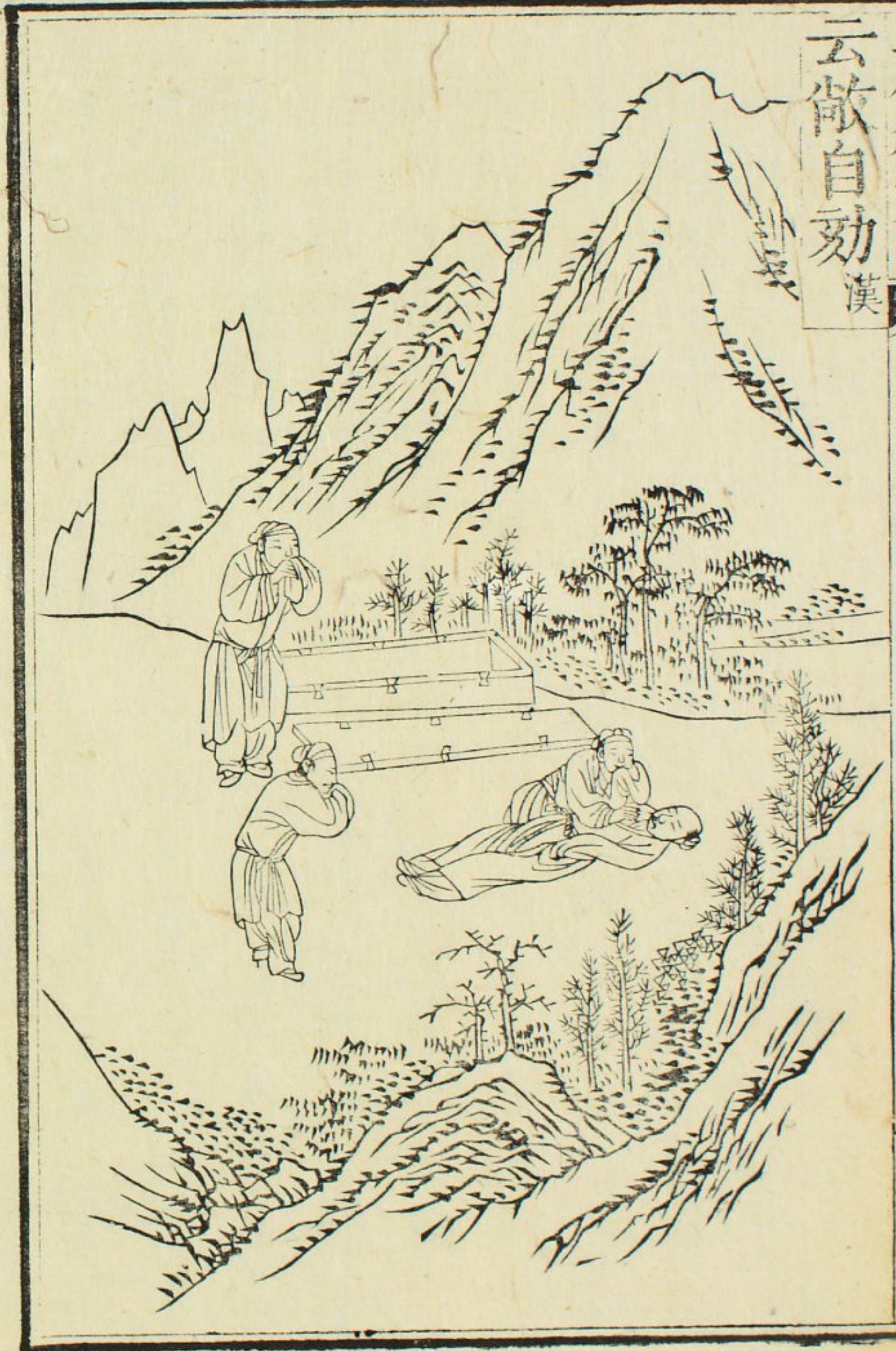


侯可華州人爲華原主簿少與田顏爲友顏病重千里爲求醫未歸而顏死目不瞑人曰其待侯君乎且斂而可至拊之乃瞑顏無子不克葬可辛勤百營鬻衣相役卒葬之方天寒單衣以居有饋白金者顧顏之妹處室舉以佐其奩具一日自遠歸家以寔告適友人郭行扣門曰吾父病醫邀錢百千賣吾廬而不售可惻然計橐中裝略當其數盡與之關中稱爲賢詩辛勤千里遠求醫生死那知隔此時張目瞑時靈不昧鬻衣空相送終儀 郭生罄橐還資急顏妹遺金更顧窮不負一心生死際華原高義薄層

空

후가는송나라화주사람이라화원원을흥니저
문제던안과사괴엇더니던안이병이동흥거늘
천리에가의원을구흥여도라오디못흥여서던
안이죽어눈을롬디아니커늘사람이닐오디후
가를기드려그러흥미냐장춧념흥매후개니르
러손으로만지니눈을롬으니라던안이주식이
업서장수를못흥여흥거늘후개신근히박가지
로경영흥여오솔푸라역스룰도와미침내장스
흥엇더니그새날이치운디라후개훗옷납고잇

더니흰금을주느니잇거늘던안의누의쳐녀로
잇는줄알고그금을주어혼구룰도으니라흥는
먼리나갓다가도라오니집의셔군핍흥믈고흥
더니마초아벗곽흥이와문을두드려닐오디내
아비병드러의원에게청흥니돈을만히달라호
디내집을푸라도모르라리로다흥매후개불샹
이너겨흥장에남은거솔혜아리니거의그수를
당흥디라다주니관동사람이다그어딜믈일크
더라



云敞平陵人師事同縣吳章平帝時章為博士王莽秉政章忤莽坐腰斬當是時章弟子千餘人莽以為惡黨皆當禁錮不得仕宦乃盡更名他師敞時為大司徒掾自効吳章弟子收抱章屍歸棺斂葬之京師稱焉車騎將軍王舜高其節義薦為中郎諫大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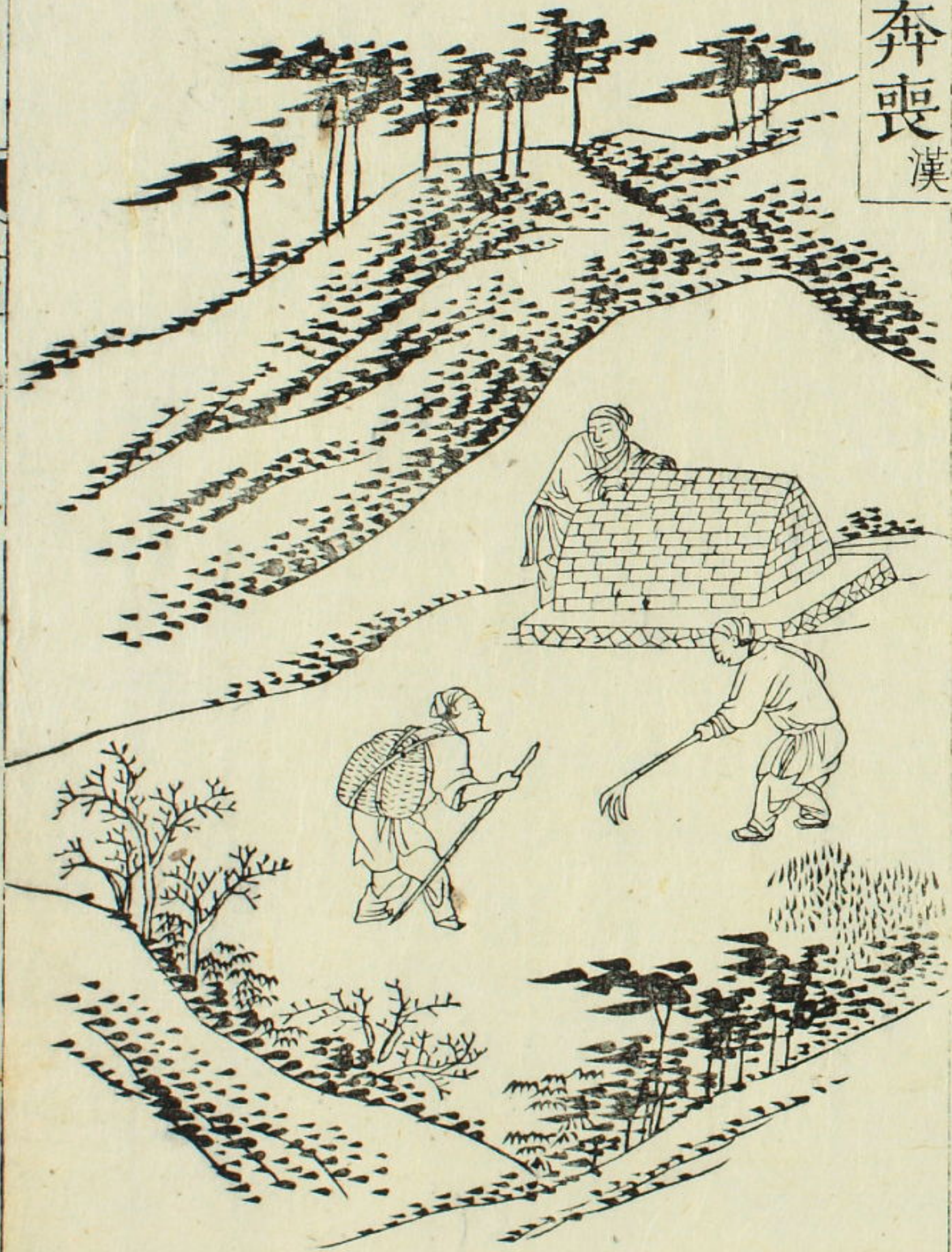
詩吳章忤莽坐腰刑畏禁門人盡更名獨有先生能自効斂藏骸骨答恩情 式穀成人誨在師事三如一分當宜先生一舉扶名教此義須令學子

知

은창은한나라평능사름이니호고을오장은은스

승으로 섬기더니 왕망이 오장을 죽이고 오장의
 테조 천여인을 훈당이 라 하니 다 금고 하니야 벼슬
 못하게 하니 다 다른 덕비 화노라 일커로 덕운창
 이이 새대 소도 연벼슬이라 스스로 장의 테저로
 라 하고 장의 죽음을 거두어 넘습 하니 여장소 하니
 셔을 사름이 다 일커터라 왕순이 그 절의 물 돕히
 너겨 증낭간 래우 벼슬을 흥이니라

桓榮奔喪 漢



植榮沛郡人少學長安習歐陽尚書事博士九江朱
普貧窶無資常客傭以自給精力不倦十五年不窺
家園會普卒榮奔喪九江負土成墳因畱教授徒眾
數百人

詩生三事一理斯存世乏隆儒孰扣昏桓氏也能
知此義奔喪負土報前恩 食貧都下習書經十
五年來力致精尊寵竟蒙稽古力何曾一字忘先
生

환영은한나라패군사름이니저문제셔을가비
화구강의잇는쥬보름섬겨샹셔를비호다가가

난흥여저싱홀길이업스니미양품과라니우고
힘버게으르디아니흥야심오년을집동산을보
디아니흥터라마초아쥬외죽거늘환영이분상
흥여구강의가흙을져무덤을일우고인흥여머
무러테저수빅을마르치니라

魏三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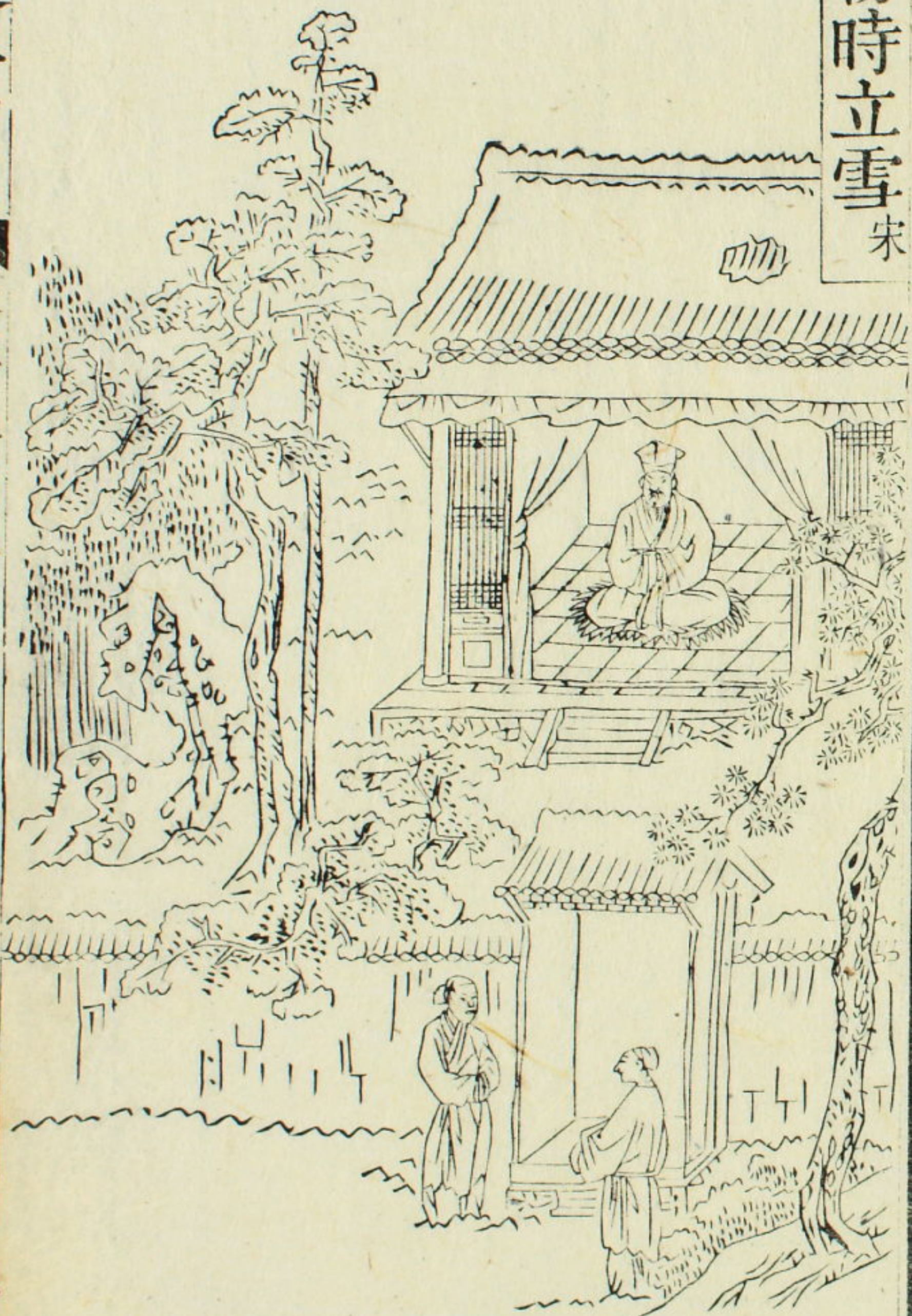
牽招觀津人年十餘歲詣同縣樂隱受學後隱爲車
 騎將軍何苗長史招隨卒業值京都亂苗隱見害招
 與隱門生史路等觸蹈鋒刃共殯歛隱屍送喪還歸
 道遇寇抄路等皆悉散走賊欲斫棺取釘招垂淚請
 免賊義之乃釋而去由此著名

詩當年從學在髫稚遇亂師亡最可悲冒刃歛屍
 還舊里蒼皇終不負吾師 道逢頑寇亂干戈史
 路先奔獨奈何一寸丹誠終感賊斫棺凶禍不能
 加

견초는위나라관진사람이니나히심여세에호

고을잇는악은의게가비호더니후에악은이장
 군하묘의막해되여가거늘견최조처가모츨내
 비호러니경성에난이니러나하묘와악은이다
 죽거늘견최악은의테즈스로등으로더브러갈
 날을무릅쓰고드러가악은의죽음을념습히고
 발인응여도라오다가도적을만나다른테즈들
 이다드라나니도적이관을써쳐모슬싸히려
 거늘최을고말린디도적이착히너겨노코가니
 일로말미암아일홈이나타나니라

楊時立雪 宋



五倫行實圖
楊時南劍人得明道之傳而歸及聞其卒設位哭寢
門以書訃告同學者後與游酢同見伊川伊川瞑目
而坐二子侍立既覺謂曰賢輩尚在此乎今既晚且
休矣及出門外雪深一尺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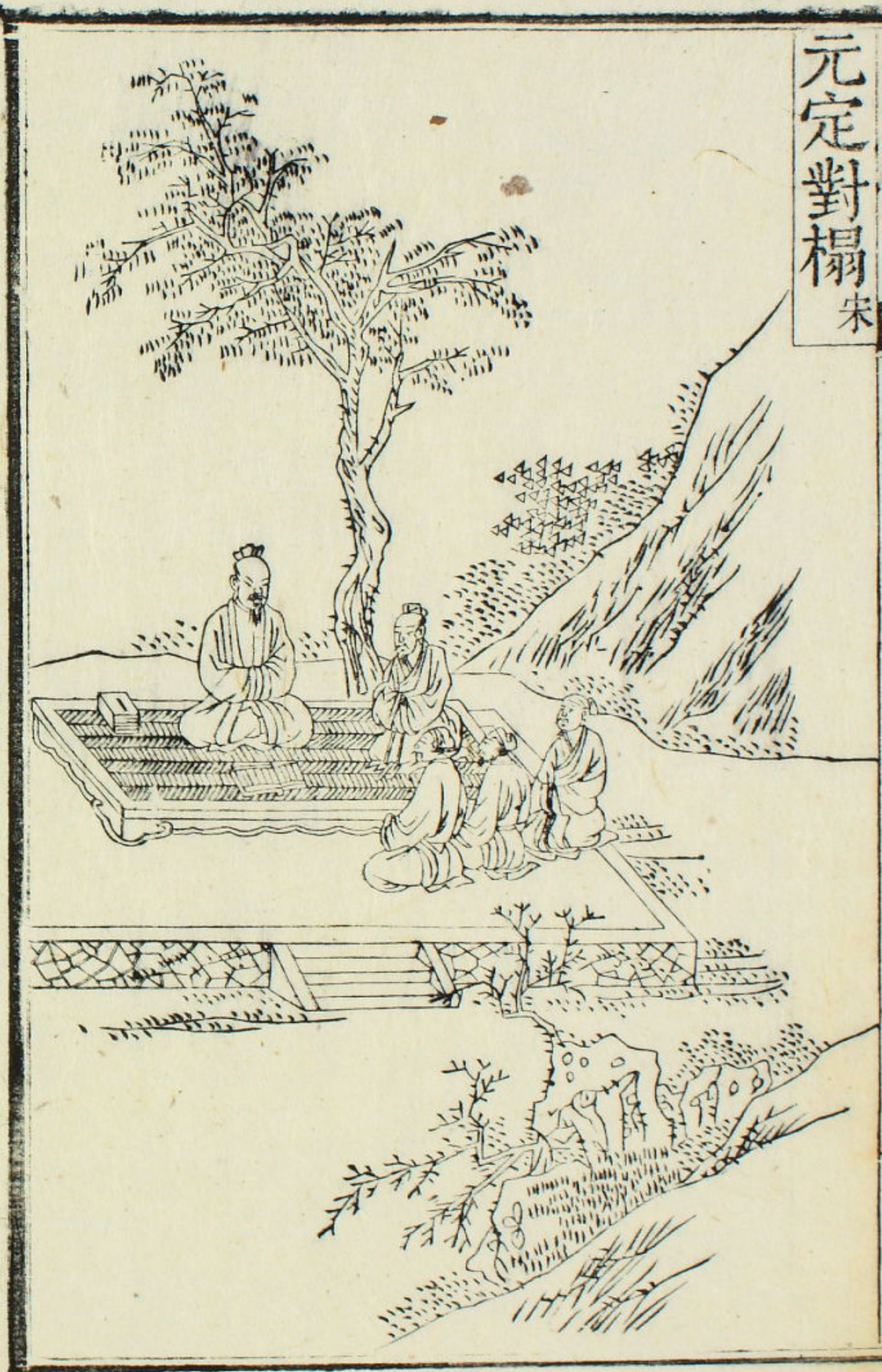
詩學道歸來道已東山頽梁毀恨難窮寢門慟擗
知天喪爲訃諸生共哭從 吾師之弟亦吾師却
與游君共事之偶值先生瞑目坐雪深一膝不知
疲

양시는송나라남감사람이니명도선생기도후
을비화도라와다가선생의부음을듯고침실문

빛기허위틀베프러울고후가지로비호던사람
의게통부하니라후에유작으로더브러이천선
싱을보오니이천선생이눈을좁으시고안젓거
늘두사람이되서섯더니선생이써치고날오시
디그디네그저잇던다오늘이이의적므러시니
가쉬라하시거늘문밖이나니눈이빠혀갑희흐
자히러라

元定對榻

宋



蔡元定建陽人父發博覽羣書以程氏語錄邵氏經世書張氏正蒙授元定曰此孔孟正脉也元定深通其義既長辨析益精登西山絕頂忍飢食齋讀書聞朱子名往師之朱子叩其學大驚曰此吾老友也不當在弟子列遂與對榻講論諸經與義每至夜分四方來學者必俾先從元定質正焉

詩蔡公問學自家庭虛已尋師要道成勤苦西山通正脉紫陽初見亦應驚力學精思素性存青年探討見真源晦庵叩學難為友師道何慚一世尊

채원형은 송나라 건양사람이니 아버지가 글을
만히 보와 정시 어록과 쇼시경세서와 당시 형용
다석일
흥이라으로 원형을 그려서 오디이는 공조망조
의 형식이 아니라 원형이 그 글씨를 기묘히 아라조라
매문의 글을 분변하고 푸러 보미더 옥경하야서 산
절정의 글을 주리물차마 누물을 먹고 글 읽더니
쥬지 일흥을 듣고 가스승하니 쥬지 원형의 비흔
거슬 무러 보시고 크게 놀나 조야 디이는 내늘
은 벗이 오테 조항년의 두디 못하리 로다 하시고
탐을 디하야 안자 경서의 기본은 뜻을 강논하 실시

미양밤 등 사디 나르고 스방의 서와 비호는 사름
은 반드시 하야 곰몬져 원형을 조차 질덩하 게하
시더라

太宗癸未置鑄字所以詩書左傳爲字本鑄銅
字十萬 世宗甲寅以孝順事實爲善陰騰爲
字本鑄二十萬字印行小學三綱行實 英宗
壬辰我 聖上在春邸命以甲寅字爲本鑄十
五萬字藏于外閣元年丁酉用前本又鑄十五
萬字藏于內閣甲寅並移藏于昌慶宮之舊弘
文館命之曰鑄字所又用字典字木刻大小三

五倫行實圖
十二萬餘字賜名生生字粵明年乙卯爲印整理儀軌以生生字爲本鑄如本字曰整理字丁巳小學五倫行實鄉禮合編編成命小學鄉禮合編用丁酉字五倫行實用整理字並自鑄字所印頒每印一書必載鑄字事實於卷端以識其廣惠壽傳之義而在是書尤切蓋字本也編名也印書之所也皆追述 兩聖朝徽規若合符契也

五倫行實圖卷第五

